

## 혁명가의 자세

몇 해전 어느날이었다.

이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인민생활문제와 함께 과학기술보급문제, 보건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에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할 때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건설도 병행시키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 이어 바다를 끼고있는 시, 군들이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건설을 병행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니 그이의 마음속엔 오직 인민뿐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후더워 올랐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까지 건설하면 시, 군의 면모가 한층 새롭게 변모될것이며 우리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경공업부문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보건부문, 과학교육부문까지 포괄하는 보다 폭넓고 전면적인 지방발전정책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시, 군들에 과학기술보급중심과 병원을 건설하는것을 지방발전에서 선행시켜야 할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의 실정에서 전국의 모든 시, 군병원들을 새로 건설하는것은 정말 내리기 힘든 결심이지만 무조건 내려야만 하는 결심이라고,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라고, 제일 어렵고 힘든 때에 제일 힘든 문제를 결심하고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이 혁명가의 자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말씀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제 머지않아 보다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우리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오는듯 싶었다.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의 숙원을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